

여야, 일제히 '총선 모드'

민주, 선거기획단 구성... 한국당, 2차 영입 발표 시기 고심 바른미래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관영...비당권과 창당 속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총선거기획단 발족시키는 등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분당과 대안신당 창당 등 군소정당 발 정계개편 움직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총선거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포함된 기획단은 전체적인 총선 전략 및 주요 정책 공약 수립, 공천 세부 규칙 결정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이

후에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총선거기획단이 구성되면 11월 중에 준비 작업을 다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쯤부터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인재영입 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년 총선보다 3달가량 일찍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선대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누가 포함될지가 벌써 당내 관심이다. 당에서는 이미지 제고 및 통합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원혜영·김부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시스템 물갈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인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하위 20%' 계산 시 불출마자는 빼는 것을 추진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당도 이날 오후 총선거기획단 임명식 및 첫 회의를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맹우 사무총장이 단장으로, 이진복 의원이 총괄책임인 기획단은 매주 월·수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천 룰 확정 등의 작업을 가속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향후 공천 심사시 참고자료가 될 기존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친 상태로 당무감사에는 현역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이른바 '물갈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2차 발표도 추진하는 등 인재영입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달 31일 발표된 1차 인재영입 물망에 올

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영입이 일단 보류되는 등 인재영입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한국당은 2차 발표 시기나 내용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등 계파별로 각각 총선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날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앞서 '12월 탈당'을 공언했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혁은 6일에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7일에는 공개회의를 연다. 7일 회의에서는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호남 의원들도 4일 신당의 명칭을 대안신당으로 확정하는데 이어 17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대안신당' 당명 확정

평화당 탈당 호남 의원들 17일 창당발기인대회

제3차대 신당 창당을 내걸고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호남지역 의원들은 4일 신당의 명칭을 '대안신당'으로 정했다.

대안정치연대 모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경현 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명 공모 절차에서 최종 후보로 압축된 '대안신당'과 '대안정당'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안신당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 색채와 관련, "(故)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 의지를 담아 김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당 색이었던 진녹색을 택했

다"며 "거대 양당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쓰니 진녹색은 제3차대를 뜻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대안신당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낸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유성엽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대안신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제3신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계적 정계개편의 과정을 거쳐 창당될 것"이라며 "지금의 대안신당도 제3신당에 합류할 전망이다"면서 현재의 당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檢 견제 공감대...공수처 설치는 이견

여야 2차 정당정책토론회

여야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원인은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와 강제수사권,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할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에서 자유로워서 기존 검사들처럼 인사 때문에 권력에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공수

처 설치가 검찰개혁과 동일어로 국민들에 호도되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며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조국 일가의 어머니 마한 범죄 혐의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란 조직이 태생적으로 가진 한계가 바로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최초보위원장은 "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검·경이 제각각 감싸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던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라며 "한국당은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건설적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재집권 가능자" 민주 "당 오만해선 안돼... 질서있는 쇄신해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숍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반동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보셨다"며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년에 선거를 이겨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2022년에 재집권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우리가 크게 승리해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선거 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 10일쯤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21대 총선을 잘 치러내는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10% 가까운 분들이 조금씩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안전망을 설치하고 보호하고 문화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총서 자성문...이해찬 "총선 인재영입위원장 맡겠다"

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이 오만하지 말고 경계심을 제때 들어야 한다"는 자성문이 제기됐다. 이날 의총은 오후 2시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 후 오후 3시 50분까지 2시간 가까이 총 14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는 자유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총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정국 운영에 대한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외부적으로 협상하는 지도부에 힘을 모아주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는 '질서있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초선 의원과 다선 의원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당과 정부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오만해선 안 되고 성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야당에 집중하다 보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개혁안 처리를 위해 다음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의총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기국회가 끝나면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 (위원장)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이병훈, 민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 재선임

이병훈 전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재선임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촉되면서 지난해 7월 지역위원장직을 사임했었다.

이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는 글로벌모터스 설립이 본궤도에 올랐고, 광주의 AI 산업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서 "지역과 중앙이 손을 잡고 광주를 발전시키고, 문화가 꽃피는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시장 재임 시절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정상궤도 안착, 광주문화관 건립 추진, 옛 전남도청 원

형복원,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등 광주의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8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3174980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